



5면

불필요 보도블록 교체 폐지, 최고 혁신사례로

전주매일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음 6월 17일) 제33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 새만금에서

LS그룹,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 투자금액 1조8402억원 규모 전구체 생산공장 연내 착공 신규 일자리 1450여개 창출

尹 대통령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해 독자적 공급망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새만금개발청장, 도석구 LS MM 대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명노현 LS 대표, 윤 대통령 구자는 LS그룹 회장, 허제홍 엘앤에프 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사진=뉴시스 제공>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1조 8,402억원 규모를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LS그룹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난달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이후 첫 성과이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45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투자는 20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배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IS-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주)의 이차전지 양극소재(전구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

I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

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LS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사업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우수한 기반시설,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일괄통합(원스톱) 서비스 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S그룹은 세계 서열 16위로 '08년 LG그룹에서 분리되어 전기, 전력, 에너지 소재 등의 분야에서 132개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이다.

최근에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국가 미래첨단전략 사업인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분야에도 진출해 영역을 확장 중이다.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임준 군산시장 구자는 LS그룹 회장, 허제홍 엘앤에프 이사,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이사, 지역 국회의원, LS계열사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 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비약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LS그룹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산업과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은 우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되고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IS와 엘앤에프의 톱 큰 투자를 환영하며, I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주) 등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메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LS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산업 도야기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과의 상생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S그룹 구자는 회장은 “새만금은 우리 LS그룹의 이차전지사업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며, “비철금속분야 최고 경쟁력을 가진 IS와 양극재 선도회사인 엘앤에프가 황산배탈-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구축하여 한국 배터리산업의 미래 성장을 선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으로 총 31개 기업, 6356,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군산=김판근 기자

장수 침령산성 내 집수시설.

장수 침령산성 국가 사적 되다

문화재청서 지정

문화재청이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소재한 ‘장수 침령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2일에 지정했다.

전북도는 침령산성에 대해 지난 2000년 12월에 도 문화재자료로, 2020년 7월에 도 기념물 제141호로 승격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장수군과 함께 추가 학술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 지정하는 값진 성과를 이루었다.

국가사적 ‘장수 침령산성’은 둘레 497m의 산성으로 문화재 구역은 7필지 293,150㎡에 달하는 장수군에 분포된 산성 중 최대 규모이다.

침령산성은 2005년 정밀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전라북도와 장수군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산성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 장수군립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의 시·발굴조사를 추진했다.

발굴조사 결과 집수시설(集水施設), 건물지, 치(雉), 문지(門址)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산성 내부에서 발견된 3기의 원형집수시설은 고대 집수시설 축조기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침령산성은 백제 세력과 신라세력의 접경지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산성을 사수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일어난 역사적 현장으로서 후백제의 외곽 방어체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재훈 기자·장수=고판호기자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 축제 서막 알렸다

영지 대집회장서... 베어그릴스 퍼포먼스·드론쇼 등 선보여

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 김관영 집행위원장(전북도지사), 반기문 명예위원장, 세계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국 주한 대사,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주요 인사

가 자리를 빛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대 여섯번째다.

개영식은 식전행사·본행사·식후행사로 진행됐다. 영상축사, 안전영상 시청, 주제공연 순으로 구성된 식전행사

가 끝나면 스카우트 장문례와 함께 내빈 입장과 각국 기수단 입장이 이어졌다. 이후 스카우트 선서와 개영 선언, 잼버리기를 계안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식후행사로 본격적인 축하 공연이 열렸다.

개영식은 세계적 탐험가이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수석홍보대사인 베어그릴스의 깜짝 퍼포먼스와 포레스텔

라의 미니 콘서트, 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드론쇼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조직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꿈의 야영, 새만금 잼버리를 드디어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행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Draw your dream~!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

2023 정읍 물빛축제

2023. 8. 12.(토) - 15.(화)/4일간 정읍천 어린이 축구장 일원

시민 중심, 으뜸 정읍